



세종의 꿈, 혁신의 '쾌속선' 으로

2014년 Chambers Asia '대한민국 최고 로펌상' 수상한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 좌측부터 원용준, 한상훈, 김동욱, 장경수, 박성기, 이병한, 홍세렬, 기영석, 김종수, 신창용 변호사

1981년 설립한 법무법인 세종(SHIN & KIM, 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이끄는 대형 로펌으로 성장해 왔다. 법무법인 세종에는 현재 350명이 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Fortune 500대 외국기업·국내 대기업·금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공기업·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법률시장 평가 전문지인 2014년판 Chambers Asia의 국내 로펌 평가에서 다른 로펌을 제치고 한국 최고 로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이하 세종 노무전문팀)을 찾았다.

■ 유능한 인재 영입, “지속가능 성장동력 마련할 것”

법무법인 세종 노무전문팀 홍세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일본·러시아·라틴아메리카 등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전담하는 지역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운용하며 현지 로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외 기업에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베이징·상하이 등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지만,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어 마냥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기 시작해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 수입료 하락 등 변호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2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했고, 각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이미 수백 명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사회 전반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시장은 더욱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돼 대규모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 대형 로펌들이 들이닥치면 법조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경수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세종은 경제민주화전담팀, 자산승계지원팀, 프로젝트&에너지팀 등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일본·러시아·라틴아메리카 등 해외 지역 전담팀을 구성해 국제화 시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

극 도우면서 해외의 대형 로펌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해 ‘미래에까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 세종 노무전문팀, 성공적 노사관계 구축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세종 노무전문팀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은 물론, 구체적인 노동분쟁 발생시 송무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A to Z를 담당해 고객을 위한 토탈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전문팀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의 제·개정이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HR 관련 자문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및 인력개편,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등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치밀하면서도 전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노동관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영석 변호사는 “로펌의 대표적인 업무인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도 참여해 M&A와 관련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노무전문팀은 하나의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으로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각 구성원을 송무팀과 자문팀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송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노무전문팀의 각 구성원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산업구조의 트렌드(trend)에 대한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각 기업의 인사·노무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도 해당 기업에 꼭 맞는 솔루션(Solution)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러한 듀얼(dual) 구조의 시스템이 세종 노무전문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병한 변호사는 “흔히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기업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 세종 노무전문팀 구성원들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인사·노무분야는 각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확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다른 법영역에 비해 매우 로컬(Local)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회사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무전문팀은 이미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및 외국법 자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 외국회사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최근 인사노무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무전문팀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고객들이 당면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 감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막강한 인적 구성,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이 강점

노무전문팀의 인적 구성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막강하다. 세종 노무전문팀은 30년 가까운 법조생활의 경륜을 갖춘 홍세렬 변호사(연수원 15기)를 필두로 대법원에서 노동사건 전담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이병한 변호사(연수원 24기), 기업 관련 업무와 노동업무의 전문가로서 앞서 언급한 Chambers Asia로부터 매년 꾸준히 Employment 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고 있는 기영석 변호사(연수원 30기), 노동은 물론

M&A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업계 정평이 난 팔방미남(美男)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 노동 분쟁, 회사 일반 분쟁, 기업행사 등 송무분야에서 회사 전반을 아우르는 실력자인 박성기 변호사(연수원 32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속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를 영입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판례분석과 조사·판정 등 업무를 주로 하며 노동법·노사관계에서 내공을 쌓아온 파워엘리트 출신 변호사. 장경수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영입해 법원·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등 노동 관련 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갖춘 전문가들이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세종 노무전문팀의 강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에 비례해 외부에서 세종 노무전문팀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호적이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법조 매체 Chambers는 ‘세종은 노동 관련 문제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Shin&Kim has a core competence for labour matters)’고 평가했으며, 기영석 변호사를 ‘Leading Individual’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유수의 국제 법조 매체 Legal500은 홍세렬, 장경수 변호사를 Employment 분야의 ‘Recommended Lawyer’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박성기 변호사는 “세종 노무전문팀은 국내의 법조 시장 전반에 있어 나날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며 “최근 세종 노무전문팀은 S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

법무법인 세종

2012.3.5	스테이트타워 남산으로 사무실 이전(중구 퇴계로 100)
2011.8.22	특허법인 코리아나와 업무제휴
2010.2.11	법무법인 세종 상해사무소 개설
2010.1.1	법무법인 에버그린 통합
2006.1.12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개설
2005.3.14	세종북경투자자문 유한회사 설립
2003.12.15	세종차이나경영자문(주)설립하여 중국투자 컨설팅 업무 개시
2001.1.1	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 합병
1997.7.7	법인전환: 법무법인 세종 SHIN & KIM(인기일 : 1997.6.24.)
1991.6.12	에이스타워(삼도빌딩으로 이전)중구 순화동 1-170)
1986.11.6	신문로 경희빌딩으로 사무실 이전(중로구 신문로 27가 1-122)
1983.3.15	신영무 변호사 세종합동법률사무소 SHIN & KIM 개소(세종로 교보빌딩 17층)
1982.3.1	남산합동법률사무소영문명을 Lim, Shin & Kim으로 변경
1981.4.1	신영무 변호사 남산합동법률사무소 합류

되고 있는 노동사건을 수임하는 등 노동법무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사건은 고객이 비밀리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 노무전문팀은 S자동차 사건 이외에도 H증권 사건 등 업계에서 ‘핫’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 최근 문제된 통상임금 건과 관련해 K공사·H사·D시멘트·H은행·H제지·S자동차·H호텔 등 국내 우수 기업에 통상임금 구조와 관련해 자문과 대응 전략을 제공했으며, H공사·H제지·S토건·S호텔 등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기 변호사는 “K운수·L보험·S중공업 등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 S호텔 해고무효 및 전보 무효확인 사건, H공사·S자동차·K사의 불법파견 소송, M자동차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 S엔지니어링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등 소송사건은 물론, H증권 등 노동위원회 사건과 형사 사건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세종 노무전문팀의 약진을 드러냈다.

■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대응책 마련해 비용 최소화해야”

최근 노동계 판도에 대거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연말의 통상임금 판결부터 최근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까지 시시각각으로 노동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또 근로시간한도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와 결합된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강화 등 입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변호사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법원의 판례 변화는 물론, 각종 노동관련 법규의 입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쟁점이 된 부분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례 및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리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해 이를 토대로 새로 도입된 법리를 적용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서의 신의칙 적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통상임금 판결에서의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자사의 경우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자문을 제공받아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임금을 적절한 범위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영입의 자유를 모두 고려해 적절한 근로시간 제도를 설계하는 등 노사 양측의 상호 이해와 타협을 이룰 수 있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년연장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경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논의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노동사건, “사실관계 분석 토대로 틀(Frame)을 짜서 접근해야”

이병한 변호사는 “노동 송무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며 “노동 송무사건은 무엇보다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사건에 맞는 틀(Frame)을 잘 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사건의 상당수는 그 뿌리가 관련 당사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지표에 근거해 판단되고 있다는 것. 이병한 변호사는 “이런 경



▲ 홍세렬 파트너변호사



▲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우 중요한 것은 법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 사실들로 인해 관련자의 근로자성이 있다 혹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변호사로서는 개별적 사실을 적절히 조합하고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성에 관한 틀을 형성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기영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개별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가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라며 “사건화되는 노사관계의 이면에는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영향력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노사관계를 큰 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며, 노사관계의 이면에 숨어 있는 노사간의 요구사항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의 초기에 노사간 요구를 읽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분쟁을 합리적으로 초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변호사가 단순히 노사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중간에 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기영석 변호사가 적시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은 예리했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초기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매우 격렬한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쟁의행위를 둘러싸고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불법파견·계약직 차별·통상임금 등 개별적 노사관계가 집단적 노사관계화되면서 격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업에서 노사관계 초기에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사태가 악화된 뒤에야 우리 법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역량 결집 위한 조직 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세렬 변호사는 “세종은 고객들 사이에서 정도를 걷는 로펌으로 평판이 나 있고, 노무전문팀도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펌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기업”이라 전제한 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사노무 문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경영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변호사들에게도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적절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업계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홍세렬 변호사는 또 “세종은 이러한 노력과 역량강화를 통해 노무전문팀을 업계 최고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며 “노무전문팀이 하나의 팀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의 융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세렬 변호사의 마지막 언급은 노무전문팀, 나아가 법무법인 세종의 지지를 읽기에 충분했다.

“세종의 변화와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매일 새로워지는 세종은 변화의 파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헤쳐 나가는 쾌속선이 되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법**

김준환 매체팀장 pubceo@elabor.co.kr